

# 전남의 명산 쓰레기 '산더미'

### 팔영산 185.2t 등 7곳 3616t 수거...전국 1만4369t 달해 국립공원 포함 안돼 관리 못미쳐...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 산림청 2019~2020년 자료

전남지역 유명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전남지역 명산들이 등산객이 내다 버린 생활쓰레기와 무단투기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폐기물로 뒤덮이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 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81개 명산에서 수거된 불법 폐기물은 1만 4369 t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명산 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버려진 곳은 강원도 응봉산으로 무려 3530.2 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응봉산에 이어 강원 방태산(564.4 t), 경기 소요산(481.5 t), 전북 모악산(405.7 t), 경기 감악산(371.1 t) 순으로 많았다.

전남에서는 고흥 팔영산에 가장 많은 쓰레기가 투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팔영산에는 전국에서 11번째로 많은 185.2 t의 불법 폐기물이 수거됐으며, 특히 산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 182.4 t에 달했다.

이 밖에 광양 백운산 117.8 t (15위), 천관산 36.2 t (21위), 깃대봉 17 t (30위), 조계산 3.7 t (37위), 두륜산 1.7 t (40위) 등 전남지역 명산 7곳에서 3616 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00개 명산을 대상으로 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산림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부터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실시된 산림청의 폐기물 실태 조사 때보다 실제 처리된 쓰레기의 양이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산림청은 전국 100개 명산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이 7066 t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직 수거가 시작되지 않은 충청·경상지역 29개 산을 제외한 81개 산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양이 벌써 1만 4369 t에 달하면서 조사량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의원은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 폐기물도 우리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등은 산지 내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산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쓰레기 등을 몰래 버리지 않는 의식있는 산행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민생자금 지원

### 광주시구청장협의회, 소상공인·학교박청소년 등

광주시 5개 구청이 정부와 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학교박청소년, 종교시설 등에 대해 특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12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과 별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꽃집과 서점, 문구점, 공공영역 문화·체육시

설의 비정규직 강사가 포함됐으며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학교박청소년에게도 10만 원이 지급되고 등록된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5개 자치구 총 6680여개 업체(명)에 20억 9000여만 원에 달한다.

지원금 신청은 각 구청별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 또는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5개 자치구는 1차 신청분은 10월 말까지, 2차 신청분은 11월 초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념, 박금만 초청전

### 전남대 오늘~19일 여수 예술마루...14일 작가와의 만남도

전남대학교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박금만 작가 초청 전시회를 가진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전남문화재단과 함께 여순사건 화가로 유명한 박금만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전시실에서 가진다.

'불꽃, 여순 회화의 역사'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박금만 작가의 작품 45점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14일에는 작가로부터 여순사건의

진실을 듣는 시간도 함께 진행된다.

조기량 전남대 부총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물론 유가족과 여수지역민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며 "이에 전남대는 '여순사건 연구소'를 설립해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지역민들의 명예 회복을 연구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수창초 개교 100주년 행사 열어

광주 수창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21년 10월 3일 서방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수창초는 최근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광주 수창초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으로 교가·교목·교화를 교체했다. 또 100년의 역사를 디지털 자료로 담은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했다.

수창초는 광주 초·중·고 중 개교 100년이 넘는 12번째 장수학교다.

광주에서는 지난 1896년 개교한 서석초가 올해로 개교 124주년을 맞은 최고령 학교다. 이어 중앙초가 1907년 문을 열어 올해로 114주년을 맞았다. 이 외에도 송일중, 송일고, 수피아여고,

수피아여중, 자연과학고(옛 농고), 송정동초, 광주제일고, 광주여상, 삼도초 등이 개교 100년이 넘었다.

이들 장수학교 대부분은 구도심에 있어 도심 공동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배창호 수창초 교장은 "수창초는 100년 동안 지역 인재의 요람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며 "100년을 넘어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이어갈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 고흥 녹동고에 스마트캠퍼스 개관

전남대학교가 총괄하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고흥 녹동고등학교에 원격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캠퍼스를 개관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역혁신플랫폼은 전남의 비대면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교·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녹동고등학교에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했다. 개관식과 함께 교사

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시범수업 시연회와 워크숍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스마트 캠퍼스에 조성된 온라인 스튜디오와 원격 강의실을 통해 디지털 트윈방식의 수업 운영 등을 경험하는 등 새로운 교수법은 물론 구축된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채희중 기자 chae@



도시락 사고 이웃 도와요 12일 광주시 동구청에서 임택 청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찰밥도시락 5000원 후원 바치회 홍보를 위한 사전 판매활동을 펼치고 있다. 5000원에 판매되는 찰밥 도시락의 판매 수익금은 관내 취약세대 300가구의 김장김치(5kg) 나눔에 사용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